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3월 26일 14:30부터 취급하여
주십시오.

제 목 : 한국은행-통계청 공동포럼 개최

- 한국은행은 3월 26일(수) '균형발전을 위한 과제, 그리고 지표를 통한 전략'이라는 주제로 통계청과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
 -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통계를 기반으로 지역 간 격차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
 - 한편,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각각 지역별 주택시가총액 주요 편제결과, 분기 지역내총생산(GRDP) 작성방안 및 시산결과를 발표
 - 개회식에서는 이형일 통계청장의 개회사,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환영사,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며, 이후 주제 발표 및 통계세션이 진행
 - 프로그램, 발표자료 주요 내용 등은 <붙임> 참조
- ※ 환영사는 <별첨> 참조

문의처 : 경제통계2국 국민계정기획팀 팀장 강영관, 과장 이재진
국민B/S팀 팀장 남민호, 과장 이은송

Tel: (02) 759-4330, 5088 Fax: (02) 759-5094 E-mail: naat@bok.or.kr
(02) 759-4375, 4416 Fax: (02) 759-5247 E-mail: bokbs@bok.or.kr

공보관 : Tel (02) 759-4015

"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"



한국은행
BANK OF KOREA

<붙임>

< 차례 >

1. 「한국은행-통계청 공동 포럼」 프로그램1

2. 발표자료 주요 내용(요약)2

[주제발표]

<발표 1>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: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
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

<발표 2>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역정책 및 지역통계
안기돈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

[통계세션]

<발표 3> 분기 지역내총생산(GRDP) 작성방안 및 시산결과
임대환 통계청 소득통계과 사무관

<발표 4> 지역별 주택시가총액 주요 편제결과
이은송 한국은행 국민B/S팀 과장

1. 「한국은행-통계청 공동 포럼」 프로그램

□ 주제 : 「균형발전을 위한 과제, 그리고 지표를 통한 전략」

□ 일시 : 2025년 3월 26일(수), 14:30~17:30

□ 장소 : 한국은행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

□ 프로그램

세션	내용
(30분) 2:00~2: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참가 등록
<개회식> (40분) 2:30~3: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 회 사 : 이형일 통계청장 ■ 환 영 사 :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■ 기조연설 :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
<주제발표> (60분) 3:10~4: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: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표자 :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■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역정책 및 지역통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표자 : 안기돈 충남대학교 교수 ■ 토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좌 장 : 김승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- 토론자 :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
(20분) 4:10~4: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Coffee Break
<통계세션> (50분) 4:30~5: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분기 지역내총생산(GRDP) 작성방안 및 시산결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표자 : 임대환 통계청 사무관 ■ 지역별 주택시가총액 주요 편제결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표자 : 이은송 한국은행 과장 ■ 질의응답
(10분) 5:20~5: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폐회

2. 발표자료 주요 내용(요약)

<발표 1>

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: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

남창우 (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)

(현황과 문제점)

-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이 시작되면서 지역경제 양극화 심화
 - 2015년 이후 지역간(특히, 북부권과 남부권)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모습

(재정자립, 재정분권과 지방분권)

- 국가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,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이 강한 국가들이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
 -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구 5백만에서 1천만 명 수준에서 지역행정을 통합하고,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
 - 특히, 재정분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자체가 직접 지역발전정책을 설계·집행하도록 유도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

(기업이전 및 발전전략)

- 지방 이전기업을 분석한 결과, 단기적으로 고용과 투자는 증가하나, 기업의 건전성 및 수익성은 저하되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개선될 필요
 - [고용 및 R&D 지원정책]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고급 R&D 인력 지원방안과 더불어 이주한 인력을 위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
 - [투자 지원정책] 이전기업의 투자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
 - [기업성장 지원정책] 이전기업의 경영성과 저하가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업성장 전략을 마련할 필요

<발표 2>

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역정책 및 지역통계

안기돈 (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)

(지역정책의 현실)

- 지방소멸 국가위기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, 현재 지역정책은 지역의 현실과 괴리가 존재
 - 기존 지역산업정책은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과 무관하게 모든 지역에 동일한 지역경제성장 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
 - 또한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외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면서 기존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소홀

(지방의 인구감소)

- 지방소멸의 핵심 원인이 청년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에 있기 때문에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 역시 인구정책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
 - 미국과 대조되는 유럽의 저출생 문제는 저성장 원인으로 작동하였으며 한국 저출생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
 - 한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및 신규채용 인력(25~34세)이 급감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매년 약 6~9만 명의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상황

(지역 맞춤형 내생적 지역정책)

-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지역 환경과 여건에 기초한 지역 맞춤형 내생적 정책을 추진할 필요
 - 부처별 개별정책을 국지적이고 단절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각각의 정책수단을 융복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를 도출
 - 내생적 지역정책의 필수요소로서 철저한 기업 중심의 지역혁신시스템,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, 지역공동체 등을 구축할 필요

<발표 3>

분기 지역내총생산(GRDP) 작성방안 및 시산결과

임대환 (통계청 소득통계과 사무관)

(개발배경)

-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 GRDP 개발 추진
 - 시도별 분기 성장률을 해당 분기 종료 후 90일내 제공하고, 연간으로는 현행(現 연간 잠정은 익년도 12월 공표)보다 9개월 먼저 속보 제공

(작성방안)

- 국제 매뉴얼(IMF)에 의거, 속보성 기초자료를 활용한 연장추계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별, 경제활동별 실질 부가가치 작성
 - 기본적으로 지역별·산업별 분기 생산지수를 이용하되 생산지수가 포괄하지 못 하는 일부 산업은 행정자료 등을 활용
 - 분기와 연간 통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비례덴톤법(proportional Denton method)*을 적용

* 장주기(연간) 통계와 단주기(월간·분기) 통계를 일관성 있게 통합하는 기법의 하나로, 시계열의 단층을 최소화하고 경기의 흐름을 최대한 반영하는 장점이 있음

(시산결과)

- 지역별·산업별 2015년 1/4분기 ~ 2024년 4/4분기 실질 GRDP 시산결과에 대한 비교·분석 실시
 - 분기 GRDP의 시도별 성장률·기여도 분석, GDP 등 유관 통계와 증감률 비교, 연간 지역소득에 대한 분기 GRDP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, 통계의 현실반영도, 통계 간 정합성 및 예측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

(기대효과)

- 지역경제 동향 파악을 위한 시의성 높은 종합지표로써 경기상황에 부합하는 균형발전 정책 수립 등을 위한 핵심지표로 활용 기대

<발표 4>

지역별 주택시가총액 주요 편제결과

이은송 (한국은행 국민B/S팀 과장)

(편제목적)

- 주택자산의 경제적 중요성과 지역별 통계 확충 필요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공동으로 지역별 주택시가총액 통계(2011~2023년)를 신규 공표(2025.1월)

(편제방법)

- 대부분 주택의 개별공시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시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전환하여 주택시가총액을 산출

(주요 편제결과)

- 2023년말 기준 지역별 주택시가총액은 서울(2,320조원), 경기(1,986조원), 부산(389조원) 순으로 나타났으며, 수도권에 67.7%가 집중
- 2023년 지역별 경제규모(GRDP) 대비 주택시가총액 배율은 세종(4.5배)이 가장 높았으며, 2015년 대비로는 세종과 제주가 크게 상승
- 2015~23년중 세종과 제주의 주택시가총액 증가율이 각각 19.1% 및 10.9%로 가장 높았는데, 세종은 행정기관 이전, 제주는 2015~16년중 관광업 호조 등에 기인
- 2011~23년중 주택시가총액은 전반기(2011~15년)에는 지방을 중심으로, 후반기(2017~21년)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
 - 최근 주택경기 둔화기(2021~23년)에는 세종, 대전, 대구 등 광역시 위주로 부진

(활용방안)

- 주택 가치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 추정 및 지역의 주택시가총액 대비 가계 대출액 비율 등의 지역 금융불균형 지표 산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